



전북도경제진흥원-경기경과원, 고향사랑 상호 기부

전라북도경제진흥원(원장 이현웅, 이하 경진원), 경기경제과학진흥원은 지난 16일 올해 처음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정착과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전라북도와 경기도에 상호 기부행사를 가졌다. 이현웅 원장은 "이번 상호 기부를 통해 교류의 폭을 넓히고 우호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며 상호 발전을 응원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500만 원 한도 내에서 기부할 수 있는 제도다. 기부자는 10만 원까지는 전액, 10만 원 초과분은 16.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고 기부한 금액의 30% 이내에서 지역농·특산물 등을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다. /양은경 기자



임실소방서, 임실 고향사랑기부제 함께 동참

전주임실소방서(서장 김장수)는 임실군청에서 임실군 발전과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임실군 고향사랑기부제에 함께 20일 동참했다. 이번 동참은 올해 임실소방서 개서를 앞둔 시점에서, 지역 상생의 의미를 되새기고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임실군청 군수실에서 김장수 전주임실소방서장, 송상철 임실191안전센터장은 임실군수, 농협지부장, 농업농정지원단장을 만나 500만 원 상당의 기부증서 전달식을 가진 뒤 환담을 가졌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 외 지자체에 기부 시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사용되고, 기부자에게는 1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기부금 내 30% 이내의 답례품이 제공된다. 김장수 전주임실소방서장은 "임실군의 지역발전을 위해 함께 동참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 고향사랑기부제의 기부문화 확산과 제도의 안정적 정착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양은경 기자



김철호 재경군민회장, 고향사랑 500만원 기부

재경무주군민회 김철호 회장이 20일 무주군청을 방문해 고향사랑기부금으로 개인 최고액인 500만 원을 기탁하며 고향사랑에 동참했다. 무주군에 취약계층 지원 등 그동안 고향사랑을 실천해 온 김 회장은 "고향 무주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고향사랑기부제에 동참하게 됐다"라며 "고향 무주가 더욱 풍요로워지고 고향분들이 더 행복할 수 있도록 항상 응원하겠다"라고 말했다. 황인홍 군수는 "김철호 항우회회장의 고향에 대한 큰 애정에 감사드린다"면서 "소중한 기부금으로 군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군민이 살기 좋은 무주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무주=전문선기자

우석대, 3년 연속 간호사 국가시험 100% 합격

우석대학교 간호학과가 3년 연속 간호사 국가시험에 100% 합격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르면 간호학과 졸업예정자 108명은 지난달 20일 한국보건직업인국가시험원에서 시행한 제63회 간호사 국가시험에 응시해 전원 합격했다. 제63회 간호사 국가시험은 전체 2만4015명 중 2만3359명이 합격해 97.3%의 합격률을 보였다. 노준희 간호대학장은 "체계적인 현장중심 교육과정 운영과 더불어, 학생 개개인에게 맞는 특별 프로그램을 실시해 전원 합격이라는 성과를 거뒀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멋진 기회 선물 받고 새로운 시작’

군산대, 2022학년도 전기학위 수여식

국립군산대학교는 20일 교내 아카데미홀에서 2022학년도 전기학위수여식을 개최하고 학사 1,240명, 석사 99명, 박사 43명 등 총 1,382명에게 학위를 수여했다. 졸업식에는 졸업생 학부모, 이장호 총장 및 주요 보직자, 강태성 군산대학교 총동문회장, 신영대 국회의원, 김일준 군산시장, 김성기 한국산업단지공단 전북지역본부장, 김동수 군산상공회의소회장, 이성기 군산국가산업단지 경영자협의회장이 참석했다. 학사학위는 동아시아학부 이나현 등 1,240명이, 석사학위는 기계공학과 이윤규 등 99명, 박사학위는 물리학과 김미정 등 43명이 수여받았다. 이날 이장호 총장은 "군산대학교는 전신인 군산사범학교부터 시작해서 올해 통합 73번째 졸업식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동안 8만명 가량의 인재를 배출했다"면서 "지도교수들은 삶의 절대적인 지지자가 될 수 있으니 졸업 후에도 지도교수와 연락을 끊지 말고 유지해서, 군산대학교라는 소중한 기회와 선물을 잘 활용하기를 바란다"고 격려했다. 또한 2019년 졸업한 선배 윤이슬 동문을 소개해 이체를 띠었다. 윤이슬 동문은 미술학과와 신소재디자인학과 복수전공자로 2021년 미디어제작 회사인 (주)브라이트를 설립해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윤이슬 동문은 "어디에 취업을 할까 하는 걱정보다는, 자신이 정말 좋아하는 일을 찾는 일이 중요하다"면서 자신의 경험담을 소개했다. 이어 강태성 군산대 총동문회장은 "한 번의 선택이 인생의 모든 것을 결정짓는 것은 아니다. 한곳에만 매몰되지 말고 매 순간 넓게 볼 안목을 가지고,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새로운 방식과 과정을 겁내지 말아야 한다"면서 "각자의 위치에서 천천히 둘러보며 여유를 가지고 선택을 하고, 자신을 믿고, 그 선택을 믿고 행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군산=이재춘기자



을 할까 하는 걱정보다는, 자신이 정말 좋아하는 일을 찾는 일이 중요하다"면서 자신의 경험담을 소개했다. 이어 강태성 군산대 총동문회장은 "한 번의 선택이 인생의 모든 것을 결정짓는 것은 아니다. 한곳에만 매몰되지 말고 매 순간 넓게 볼 안목을 가지고,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새로운 방식과 과정을 겁내지 말아야 한다"면서 "각자의 위치에서 천천히 둘러보며 여유를 가지고 선택을 하고, 자신을 믿고, 그 선택을 믿고 행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군산=이재춘기자

남원시노인복지관, 전 영역 최우수(A) 획득

남원시노인복지관(관장 장진석)이 보건복지부가 주관하고 중앙사회서비스원이 시행하는 2022년 전국사회복지시설 평가에서 전 영역 최우수 A 등급을 획득했다. 이번 평가는 전국 노인복지관 211개소를 대상으로 2019~2021년 3년간의 복지관 운영과 사업에 대한 평가로, 남원시노인복지관은 시설 및 환경, 재정 및 조직운영, 프로그램 및 서비스, 이용자의 권리, 지역사회관계, 시설운영 전반 등 6개 영역 44개 지표에서 모두 A 등급을 획득했다. 그간 남원시노인복지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삶의 어려움과 고통을 겪고 있는 지역 어르신들을 위해 돌봄 공백과 복지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위탁받아 어르신들의 안부확인 및 일상생활을 지원해 왔으며 마음사랑치유프로그램을 통해 코로나로 심리적으로 위축된 어르신들의 우울감 해소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 하는 한편, 코로나로 복지관 운영이 중단



된 기간에도 결식을 예방하기 위해 도시락 배달, 생필품·평생학습·식품·방역 키트 지원, 소독 방역활동 등 사회복지사와 물리치료사, 운동재활사가 어르신 맥을 직접 방문해 서비스를 수행하는 등 기관의 노력이 평가 결과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남원=김기우 기자

무주군, 영·유아 위한 ‘책 꾸러미’ 배부

무주군은 지역내 거주하는 1~7세 영유아들에게 성장단계에 맞는 그림책 4권 등을 제공하며, 북스타트 사업은 책과 함께 인생을 시작하자 라는 취지로 출생부터 책과 친해질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아기와 부모의 친교를 돕는 지역사회 문화운동으로 시작했다. 민선8기 군정방침인 함께하는 주민복지를 위한 도서관 혁신사업으로 그림책을 매개로 아기와 부모가 풍요로운 관계를 형성하고 책과 친해지며, 성장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3월에 접수를 받아 4월에 배부할 예정이며 접수는 형실지공군립도서관 홈페이지 또는 유선전화(063-320-5622), 형실지공군립도서관에서도 접수가 가능하다. 영유아 대상으로 북스타트 책 꾸러미를 배부하며, 소정의 기념품도 제공할 계획이다. 영·유아에게 책과 친해질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독서



에 대한 흥미유발과 함께 공동체 조성기회와 평생 독서습관을 형성할 수 있는 효과가 기대된다. /무주=전문선기자

덕진소방서, 화재 초기 진압 유공자들 서장 표창

전주덕진소방서(서장 김현철)는 건물에 발연한 화재를 목격하고 신속하게 진압에 나서 화재 확산과 인명피해를 막은 김선홍(46)씨와 우경훈(34)씨 등 2명의 의인에게 전주덕진소방서장표창을 20일 수여했다. 전주시 덕진구 민성동의 '조앤리슈키시무스'에서 근무 중인 김선홍 씨는 지난 2월 7일 오후 1시 49분경 민성동의 한 건물 4층 발코니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을 목격하고 신속하게 주변에 화재 발생 사실을 알리고 인명 대피를 유도했다. 이후 같은 건물 변호사법영수법률사무소에서 근무하던 우경훈 씨와 함께 사무실에 비치된 소화기와 건물 내 옥내 소화전을 사용해 신속한 화재진압으로 건물 내 연소 확대를 막았다. 이에 전주덕진소방서에서는 두 의인의 화재진압 활동으로 화재 확산과 인명피해를 막는데 기여한 공로를 높이 평가해 표창장을 수여했다. 화재진압 중 화상을 입은 우 씨는 "다급한 상황에 생각할 겨를조차 없이 한 행동이 화재 피해와 인명피해를 막았다는 것에 매우 다행으로 생각한다. 이번 일을 계기로 더 많은 분이 화재 대응 요령을 익혀두고 유사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김현철 전주덕진소방서장은 "위험을 무릅쓰고 안전을 지킨 두 분의 용기는 시민에게 큰 귀감이 될 것"이라며 "용감한 대처로 공공의 안전을 지키는데 이바지한 두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중앙동 지사협, 저소득층 학생 입학선물 지원

20일 박미숙 중앙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지역내 저소득층 학생 대상으로한 Dream come true 스타트 사업을 진행했다. Dream come true 스타트 사업'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아이들 대상으로 학교 생활에 필요한 가방 및 신발 등을 살 수 있는 30만 원권 상품권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에 따라 관내 아이들의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학교생활에 도움을 주고자 중앙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나선 것이다. 박미숙 중앙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새로운 출발점에 선 학생들을 응원하기 위한 마음으로 선물을 준비했다. 학생들이 새로운 환경에서 좋은 추억을 만들고 좋은 벗도 사귀기를 바라며 함께 꿈을 키워 미래를 잘 만들어 나가길 응원하겠다"고 전했다. /김영태 기자



파리버게트 김제비사별점, 이웃돕기 400만원 기부

김제시 신평동에 위치한 파리버게트 김제비사별점(대표 이은숙)은 20일 관내 저소득 가정을 위한 이웃돕기성금 200만 원을 기탁했고 그의 아들 홍태현 씨는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사업을 위한 김제시 장학기금 200만 원을 기탁했다. 홍태현 씨는 우리나라 대표 기업 삼성에 입사한 데 이어 삼성 디스플레이 박사 장학생으로 선발된 기쁨을 나누고자 대학 재학 시 김제시 장학기금을 받은 적이 있어 감사한 마음을 보답하고자 김제시 장학재단에 장학기금을 기탁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담석에 참석한 이은숙 대표는 "지역 주민들로부터 많은 관심과 사랑을 어려움 이웃에 환원하고자 기탁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김제시민과 함께하는 파리버게트 김제비사별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정성주 김제시장은 "모두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인데 따뜻한 마음으로 소중한 성금을 기탁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기탁하신 성금이 취약계층 지원과 지역 인재육성을 위한 장학사업에 잘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탁자는 1988년 9월부터 길보른종합복지관에서 운영하는 푸드뱅크에 지속적으로 빵을 기부하고, 지역이동센터 아동들과 케이크 만들기를 지원하는 등 다양한 지역사회 공헌 활동을 통해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김제=곽노태기자



정읍경찰, 제71회 전북청 베스트자율방범대 선정

정읍경찰서(서장 황동석) 상동자율방범대가 전북청에서 주관한 제71회 베스트자율방범대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정읍경찰서는 지난 16일 상동자율방범대(대장 서광열)에서 김형우 부시장 황동석 경찰서장을 비롯, 경세광 전북자율방범연합회장 및 정읍자율방범대 대원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베스트자율방범대 현판식을 개최하고 우수 대원에 대한 감사장을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다. 44명의 대원으로 구성된 상동자율방범대는 평소 경찰과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해오며 합동순찰 및 범인검거, 청소년 선도, 여성안심귀가는 물론 교통질서 확립 등 민경치안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서광열 자율방범대장은 "이번 베스트자율방범대 선정은 모든 대원이 한마음 한뜻으로 활동해온 결과로 앞으로도 자부심을 가지고 지역 안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황동석 정읍경찰 서장은 "바쁜 일상 속에서도 남다른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지역치안 봉사자로 헌신하는 자율방범대원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베스트자율방범대로 선정된 것에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앞으로도 지역주민을 위한 공동체 체인 활동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정읍=김대환기자

금관리온스, 김제 자원봉사에 쌀 160포 기탁

김제시자원봉사센터(센터장 남궁행원)에서는 지난 18일 금관리온스클럽(회장 곽태주)에서 관내 취약계층 어르신 가정에 전달을 위한 쌀 160포(4백만원 상당)를 기탁했다고 밝혔다. 금관리온스클럽은 지난 2022년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정기탁을 통해 연탄 200장에 이어 올해 쌀(10kg) 160포를 후원하며 지역사회 내 따뜻한 마음을 전달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특히 기탁받은 쌀은 센터에서 진행 중인 '안부 묻는 발걸음 삼베벌 밭동' 사업의 대상자인 우울·자살·고독사 위험에 놓인 독거노인 어르신들에게 전달하며 추운 겨울 이웃들의 손길이 더해진 든든한 마음으로 한결 더 훈훈한 시간을 마련할 수 있었다. 금관리온스 곽태주 회장은 "김제지역 취약계층 어르신들에게 꾸준한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더욱 관심을 갖고 지속적인 자원봉사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남궁행원 센터장은 "홀로 외로운 겨울을 나는 우리 이웃들을 위해 전한 아름다운 손길로 함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만들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한다"며 나눔을 실천해준 금관리온스클럽에 감사함을 전했다. /김제=곽노태기자